



올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씬을 사자!

글_김동섭(조선일보 논설위원)

올 연말에는 그리운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자. 입술 가득 침을 문힌 크리스마스 씬을 카드 뒷편에 함께 곱게 붙여 보내자. 올해 나온 씬에는 우주로 향한 꿈을 실현시킨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얼굴이 예쁘게 담겨 있다. 첫 우주인의 꿈처럼 그리운 사람에게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담아 먼 고향으로 실어 보내자.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척박해질수록 우리는 썬을 기억해야 한다. 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썬은 지금부터 104년 전인 1904년 12월 한 우체국 직원의 소박한 생각에서 탄생했다.

“편지나 소포마다 동전 한 닢짜리 썬을 붙여 그 돈으로 결핵퇴치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연말에 카드와 소포 정리로 분주한 덴마크 우체국 직원 아이날 홀벨은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산업화로 유럽 각국에 결핵이 퍼져가던 시절이었다. 그의 소박한 꿈에 국왕도 감동했고 그 후 썬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정표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겨자씨만 한 사랑도 모이면 위대한 사랑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썬은 바로 그런 겨자였다. 덴마크에서 썬 판매가 된지 네 해 뒤에 미국서도 썬이 만들어졌다. 델라웨어 결핵병원에서 일하던 에밀리 비셀은 운영난에 빠진 병원을 구하기 위해 썬을 발행했다. 그러나 첫날 판매액은 25달러로 연말까지 목표액 300달러를 모으는 것은 어렵었다. 고심한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신문사 문을 두드렸지만 크리스마스와 썬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외면당했다. 하지만 그의 애담은 호소에 썬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대대적인 모금을 할 수 있었다.

우리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썬을 여러 장씩 사다. 월남 파병장병 아저씨, 일선장병 아저씨에게 부친 위문편지에도 꼬박꼬박 붙여 보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한 장에 300원씩 주고 사는 썬에는 결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썬은 우리에게 결핵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한다. 또 그런 아픔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도약했는지도 말한다.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외국인 소년 셔우드 홀의 평생의 꿈이 담겨 있다. 소년 홀은 그가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어가

는 모습을 지켜봤다.

본명이 ‘김점동’이었던 박에스더는 홀어머니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간호일을 돌봐주다가 미국 볼티모어 의대로 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최초 여 의사다. 그는 진료하다가 결핵에 걸려 34살의 젊은 나이에 숨저간 이모를 보고 결핵퇴치를 하겠다고 맘먹은 후 캐나다 토론토 의대에서 결핵을 전공하고 해주구세병원장으로 결핵요양원, 결핵위생학교를 만들었다.

1932년 우리나라 결핵 퇴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크리스마스 썬을 처음 만들었다. 썬 그림엔 일체와 싸워 이긴 거북선이 등장했으나 일체의 거부로 한국을 지키는 보루인 남대문으로 바뀌는 아픔도 있었다. ‘XMAS AND NEW YEAR GREETINGS’라고 표시된 그림에는 健保(건보), GOOD HEALTH라고 쓰여 있었다. 홀은 일체에 의해 간첩죄로 추방됐으나 썬은 해주구세병원에서 그를 도왔던 한국인 의사 문창모 씨 등이 뒤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무서운 핵’이 있다고 한다. 결핵과 북한핵이다. 결핵으로 매년 3천여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사망률은 OECD 국가중 최고란 불명예를 갖고 있다. 1930년 홀이 꿈꾸던 결핵 없는 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첫해 1전에 판 썬로 170달러를 모아 결핵예방에 나섰던 것이 지금은 한해 60억원이 넘는 돈이 모여 결핵 예방약을 생산한다.

연말에는 우리 모두 썬을 한 장씩 사자. 그리고 이 땅에 결핵퇴치 꿈을 심은, 크리스마스 썬을 만든 홀을 생각해야 한다.

“내 호흡이 멎거든 내가 태어나서 지냈던 아름다운 한국땅에 묻어주오. 이 땅을 사랑합니다”라는 홀의 유언도 기억해야 한다. 우체국 창구에서 크리스마스 썬을 카드에 붙여 먼 고향 그리운 친구에게 띄우자. †